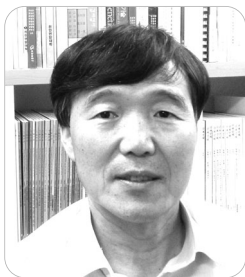


‘식용란수집판매업’ 과 ‘계란산업’

지난 2011년 4월 1일 계란산업의 한 획을 긋는 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농림수산물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위생을 크게 강화하는 골자로 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를 본격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계란을 유통할 때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특히 계란을 수집판매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계란을 포장유통해야 함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지고,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돼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이 시행되면서 농림수산물식품부의 기대만큼 계란의 위생 분야는 크게 성장했다. 지난 과거 계란 유통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란유통시스템이 정례화·체계화되는 계기가 됐고, 거래 방식 또한 투명화를 이뤘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는 신뢰가 구축되면서 계란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은 많은 장점을 가진 동시에 상당한 부작용을 야기했다. 계란유통업에 대한 까다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세한 유통상인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고 일선현장에서 제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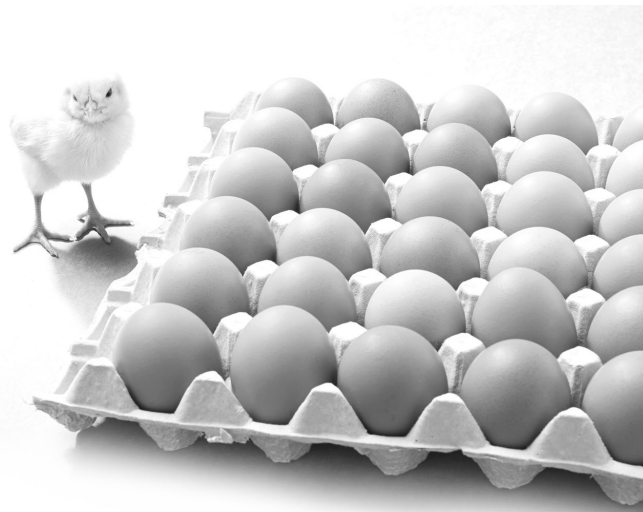
박 상 도
원삼양계 대표
/본지 편집위원

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국내 계란 일일 생산량은 평균 3,500만개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엄청난 물량 중 60% 가량의 소비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초 취지대로 제도 시행과 함께 긍정적인 시장반응은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도가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들의 목을 죄는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도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전에도 큰 무리없이 영업을 영위했던 당사자들 입장에서 법 시행과 함께 난데없는 단속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십수년간 제도권 울타리에서 벗어나 영업을 지속해왔던 계란 유통인 입장에서 온갖 규제가 많은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쉽사리 수용하기에는 무리였을 것이다.

어찌됐든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 대표적인 사례는 '포장된 계란을 냉방시설이 설치된 곳에 보관'할 수 있게 허용되면서 계란 보관방법이 개선됐다. 또 콜드체인시스템이 접목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상온(15~25℃), 실온(1~35℃), 냉소(0~15℃), 냉장(0~10℃) 중 한 가지를 영업자가 선택해 온도별 유통기한을 자율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식용란수집판매업'이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제도개선 목소리를 적극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유통인간 거래시에도 무조건 포장을 해야 하는 문제, 계란 출하시 계란마킹기를 통해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해야 하는 문제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사안이다.

특히 계란 유통인들은 그동안 냉동·냉장 탭



차 지원을 요구해 왔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신선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계란 유통시스템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그 유통시스템 변화에는 냉동·냉장 탭차가 중심에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도 냉동·냉장 탭차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냉동·냉장 탭차 뿐만 아니라 계란 유통인들이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채찍'만 능사가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제도 도입과 함께 성실하게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는 대다수의 유통인들과는 별개로 막무가내 식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일부 유통인들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문제를 두고 원칙을 앞세워 처벌을 강화해서는 이 제도는 분명한 한계에 이르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외면 받는 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악법도 법'이다. 원칙이 훼손

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분명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부 계란 유통인들은 법의 존엄성을 일깨워줄 철퇴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 특히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 관련법 조항을 전부 뜯어 고치더라도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원래 의도했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사회 통념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혹은 편법을 동원해 성공했다더라도 그 사람 혹은 기업은 사회적·도덕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 일부 계란 유통인들이 경영악화, 영세함을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생업을 영위한다면 그동안 계란 유통인들이 쌓아올린 공든탑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사회적·도덕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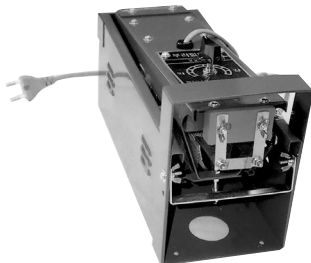
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식용란수집판매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귀담아야 한다. 무조건 원칙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고, 계란 유통인이나 소비자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제도가 계란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시발점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뜯어고쳐야 할 것을 개선해 나간다면 계란산업은 한중 FTA 등 거센 개방화 물결 속에서도 굳센 경쟁력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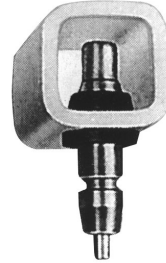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전화 : (02)461-7887(주·야)
휴대폰 : 010-8934-6887